

‘한나라발 돈공천’ 파문 확산

■ 광주·전남 ‘공천비리’ 비상

5·31 지방선거 현장

여야 모두 “불똥 튄라” 전전공공

지방선거 공천 비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광주·전남지역도 ‘공천 비리’ 비상이 걸렸다. 단 한 건이라도 적발될 경우 광주·전남지역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 치명적인 결과를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역 정가에서는 광주·전남지역에서 ‘공천 비리’가 터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 후보 선정에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내 공천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 ‘공천 비리’가 발생했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지역 모 정당 현역의원 역대 수수설이 나도는가 하면, 정당 관계자가 공천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아 검찰 내사를 받고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다.

‘지역 의원들 역대 수수설’ 등 나돌아 유급제 시행 기초·광역 비리 가능성

광주·전남지역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일부 정치 지방생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점은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에 유급제 시행으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후보군이 불리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리가 있었을 것으로 정치권은 분석하고 있다.

거액의 공천 현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각종 선물과 향응 등을 받았을 가능성은 높다. 특히 열린우리당에 비해 공천 경쟁이 치열했던 민주당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중앙당 당직자가 일부 후보들에 특별당비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진 데다 일

부 중앙당 인사들이 여론 동향 파악을 명목으로 광주·전남 지역을 방문, 특정 후보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지를 열세로 후보군이 적었던 열린우리당보다는 공천 경쟁이 치열했던 민주당에 공천 비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에 예비 후보군이 몰리면서 소액, 다수의 공천 비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고위 관계자들은 광주·전남지역 가운데 공천 경쟁이 치열했던 지

역을 중심으로 ‘공천 비리’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부분 공천 탈락자들에 의해 악의적으로 유포된 ‘설’에 불과하며 일부의 경우 상대 당 경쟁 후보에 의한 유언비어라는 것이다.

민주당 공특위원장인 신중식 의원은 “공천 비리가 있다는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며 “대부분 탈락 후보들의 악성 유언비어나 ‘카더라’ 식의 설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광주지역 공천심사위원장인 양형일 의원도 “한나라당의 공천 파동 이후 광주·전남 지역을 점검한 결과 단 한 곳의 공천 비리는 물론 관련 설도 없었다”며 “공천 비리는 공천 경쟁이 치열했던 정당의 문제”라고 은근히 민주당을 겨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與 남구청장 경선후보 3명 선정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은 15일 광주 남구청장 경선후보로 김화진 전 남구 당원협의회장, 이해명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정재훈 동아병원장을 선정했다.

또 광역의원 제1선거구는 유순남 전 남구의원과 정재수 시장 부위원장으로, 제2선거구는 서형진 광주시장 특별위원장 협의회장, 이창호 전 남구의회의장, 최치현 전 광주대총학생회장을 경선후보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남구 의회 비례대표 경선후보는 이해숙 광주시장 상무위원, 최민순 전 전남도당 상무위원, 최현숙 전 효덕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 선정됐다.

민주 북구 기초의원 경선후보 선출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14일 광주시 북구직심자수련원에서 북구 기초의원 가, 나 선거구 시민배심위원단경선을 차례로 실시, 6명의 2차 경선후보를 각각 선출했다. 이날 경선에서 가 선거구 기초의원 2차 경선후보로는 문주동·반재신·심재섭·양희성·오동우·최덕신 등 6명, 나 선거구 기초의원 2차 경선후보로는 김태훈·마광민·류영우·신봉섭·양육균·유연식 등 6명이 각각 확정됐다.

광역의원 공천 탈락자 재경선 촉구

○여수 제1, 3, 4 선거구 광역의원 민주당 공천탈락자 5명은 16일 오전 10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결과를 철회하고 재경선해야 한다”며 “중앙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광역의원 후보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후원당원명부를 불법 철회해 불공정 여론조사 경선이 실시됐다”며 “여론조사결과에 대해 공개를 요구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중앙당에서 거부하고 있다”고 경찰수사를 촉구했다.

사이버 정책 도우미 코너 운영

○신현구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16일 자신의 홈페이지(www.hgvision.co.kr)를 개편, 사이버 정책 도우미 코너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신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실에 지역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나 제안을 온라인 공간에서 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별도의 코너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신이섭 예비후보 시당위원장 비판

○신이섭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민주당)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종필 시당위원장이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후보자가 바뀌는 일은 없으리라고’ 말한 것은 특정 경쟁자를 비호하고 나선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인간적 비애와 배신감이 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민주, 지방선거 필승 다짐

곡성서 광주·전남 첫 전진대회

호남 공략 시동

민주당은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최초로 곡성에서 5·31 지방선거 필승전진대회를 갖고 호남 공략을 향한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곡성지역위원회(위원장 김효석·정책위의장)는 15일 곡성군민회관에서 한화갑 당대표, 김효석 정책위원장, 최인기 전남도당 위원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허기하 곡성군수 후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진대회를 갖고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맹비난하며 민주당 부활을 다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좋은 정책으로 국민 보살피고 화합시키라고 믿어줬더니 대통령 되고 나선 ‘난 김대중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며 차별화를 시작하고 ‘내가 이해서 표 왔다, 전라도당이란 말 듣기 싫어 분당했다’는 말을 했는데, 이는 기가 막힐 일”이라고 노 대통령을 성토했다.

한 대표는 또 “이번 선거에서 노 대통령에게 본 패를 보여주고 (민주당이) 승리를 한국 역사 중심에 서서 한국정치를 탈바꿈시키는 역사적 역할을 다하자”며 “민주당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돈 공천’에 대해서 그는 “다른 정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몇백억의 국고보조금이 나오는데, 민주당은 고작 19억밖에 안 나온다”며 “아무리 어려워도 부정은 용납할 수 없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공천을 무효화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김효석 위원장은 “민주당 공천자들은 밀실공천, 주민들과는 유리한 공천과정을 벗어나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직접적인 선택과정을 통해 선정된 만큼 지방자치의 참뜻은 물론 지역발전이 이뤄낼 수 있는 최선의 인물들이라고 자신한다”며 “민주당 공천자들을 당선시키는 것은 50년 정통 야당의 맥을 잇는 것은 물론 정권 재창출을 이뤄냈던 민주당을 부활시키는 것인 만큼 곡성을 민주당 돌풍의 진원지로 만들자”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편법, 탈법적인 행위보다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책들을 주민들에게 당당히 소개하고 심판 받겠다는 자세로 선거에 임해 ‘맛진 선거, 멋진 선거’에 목말라 있는 국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직자들에게 당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열린우리당 광주 광산 제1선거구 광역의원 후보 경선과 나·다 선거구 기초의원 후보 경선이 열리고 있는 광주시 광산구 진흥고 대강당 입구에서 각 후보 지지자들이 막대풍선을 흔들며 표를 호소하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우리당 서구청장 후보 김종식씨 확정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은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광주 서구청장 후보 경선을 실시, 김종식(사진) 현 서구청장을 당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광주시당은 서구 일반주민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기간당원 및 일반당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직접 투표 결과를 각각 50% 비율로 반영한 결과, 김 구청장이 61.36%를 얻어 46.38%(여성후보의 경우 득표에 20% 가산)을 얻는데 그친 김선옥 전 광주시의원을 누르고 서구청장 후보로 선출됐다고 14일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 구청장은 여론조사에서 61.45%, 김 전 의원은 38.55%를 각각 얻었으며, 기간당원 직접투표에선 김 구청장이 60.96%(1천754표), 김 전 의원은 39.03%(1천123표), 일반당원 직접투표에선 김 구청장이 61.70%(269표), 김 전 의원은 38.80%(167표)를 각각 얻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 광주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양금숙·이명자·장혜숙씨 선정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공직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는 16일 광주시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양금숙 회계사 ▲이명자 북녘어린이영양항공공장 사업단장 ▲장혜숙 전 전남도청 여성국장(가나다순)을 선정했다.

이들은 광주시당 상무위원회에서 순번 인준을 받아 최종 후보로 확정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지붕·옥상을라브' (Roof/Okum) featuring water-saving and energy-saving products. Includes contact info for (주)태양주박개발.

Advertisement for '건설 면허의 모든 것' (Everything about Construction License) by C&S. Lists various services and contact info.

Advertisement for '방수' (Waterproofing) services, including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and '직접 공사하세요!'.

Advertisement fo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Public Brokerage Specialist Academy) with '전국 1위 합격률 1위' claim and contact info.